

연구논문

노화 감정의 동학과 문화 정치: 2000년대 다큐멘터리 노년서사를 중심으로*

신진숙**

이 논문은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 노년기 삶에 대한 문화적 재현과 이를 통해 구성되는 노화 감정의 동학이 무엇인지 2000년대 다큐멘터리 서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노년기 감정의 규범과 연관된 서사화 과정을 고찰하고, 행복과 불행의 이분법적 감정 프레임에 의존하는 기존의 노화 담론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대중화된 '행복한' 노년 서사와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노년기 감정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평범한' 노년 서사에 대해 주목했다. 한국사회에서 노화의 감정이 구성되는 전형적인 방식은 대부분 성공적인 노화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노인의 삶을 '성공/평범', '행복/불행'으로 구별 짓고 동시에 위계화하는 시선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행복한 노년 서사에서 소비되는 노년 이미지가 과거회귀적인 레트로토피아 감정들과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보여주었다. 또 이와 같은 행복한 노년 서사들이 역설적으로 노인들의 진정한 감정들을 억압하는 정동적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음을 비판했다. 나아가 이른바 성공적이지 않은,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노화의 의미를 고찰할 수 있는 서사들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노화의 복잡한 감정 구조를 드러내고자 했다. 특히, 노인의 감정을 불확실성이 하나의 일상적 삶으로 편재하는 현재의 사회 현실과 연결 지어 맥락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이는 노인의 정동적 삶을 우리 시대의 집합 감정 속에서 통합적으로 읽어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제어: 성공적인 노화 담론, 행복의 약속, 감정의 구조, 정동 소외자, 불안정성, 감정의 문화 정치

* 이 논문은 2011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NRF-2011-362-H00001).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HK교수(kkamsse@khu.ac.kr).

I. 서론

이 논문은 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 노년기 삶에 대한 문화적 재현과 이를 통해 구성되는 노화 감정의 동학이 무엇인지 2000년대 다큐멘터리 서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노년기 감정의 규범과 연관된 서사화 과정을 고찰하고, 행복과 불행의 이분법적 프레임에 의존하는 기존의 노화 담론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대중화된 ‘행복한 노년 서사’와 다른 차원에서 노년기 감정의 복잡성을 드러내는 평범한 노년 서사에 대해 주목하였다.

2000년대 들어 다양한 노년 서사들이 출현하고 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지구적으로 인구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2013년 유엔(UN)의 〈세계 고령화 인구보고서(World Population Ageing)〉에 의하면 21세기가 되면 대부분의 국가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노년의 삶에 대한 담론과 실천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로우와 칸(2008)에 의해 처음 주장된 성공적 노화 담론(successful aging discourses)이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시각이다. 우리 사회 또한 이를 기초로 한 다양한 노인 정책과 문화, 산업 등이 정립되어 왔다. 성공적인 노화 담론은, 노인들을 다른 세대 및 연령들과 구분 짓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차별하는 연령주의(ageism) (Butler, 1969)를 비판하면서 노년에 대한 긍정적 개념을 제공해왔다(정진웅, 2014). 이는 폭넓은 영역에서 노년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을 가져왔으며, 지금은 한국을 포함해 고령화되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지배적인 노년 담론으로 활용되고 있다. 성공적인 노화 담론은 노인을 쇠약하고 소외된 약자로 구분하는 연령 분리주의적 통념들에 대한 대안적 담론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여전히 생산적인 노년의 삶이 하나의 문화적 규범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노년 서사물들은 바로 이러한 성공적 노화 담론과 연계하면서 고령사회에서 노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사회는 어떻게 노화의 의미를 새롭게 개념화할 것이며, 또 어떻게 다가올 우리 모두의 미래를 대비하고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들을 검토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기실, 김홍중(2016: 440)은 사회란 리얼리티이기 이전에 개념적 구성물이며, 개념적 구성물이기 이전에 하나의 상상

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 그리고 상상으로 이해되는 사회는 고유한 이미지 표상 혹은 풍경(socioscapes)을 갖는다고 지적한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문화적 재현들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현 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사회학적 경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워낭소리》,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칠곡 가시나들》, 《시인 할매》 등 대중적으로 큰 호응을 얻은 작품들을 통해 노인의 삶을 성찰해 보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년 서사들은 대부분 행복한 노년의 삶을 재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화적 재현 장에서 행복한 노년기 삶의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역설적으로 다양한 노년에 대한 재현들이 충분히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즉, 문화적으로 행복한 노년의 삶이 부상될수록 평범한 노년기 풍경들은 주변화되는 경향이 생겨날 수 있다. 예컨대, 황지영(2012: 142-3)은 텔레비전과 같은 대중매체의 텍스트가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시청자들에게 지나치게 도전적이지 않은 관행적인 텍스트들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하고, 잠재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형성시키는 하나의 근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즉, 매체가 동원하는 언어가 집단 내의 고정관념을 영구화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와 동시에 이러한 고정관념에 도전하거나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 글은 다큐 서사 중에서도 노년기 감정의 복잡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적 텍스트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행복한 감정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배적인 노년 서사와 함께 이러한 서사화 과정과 충돌하고 경합하면서 문화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노년의 복잡한 감정 풍경들을 고찰해 보려 한다.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복한 노화 담론과 재현의 과정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다. 성공적 노화 담론과 맞물려 다양한 노화 다큐멘터리들이 표방하는 행복한 노년의 삶이 어떤 문화적 배경에서 출현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행복한 노인 이미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현대 문화대중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노화 감정의 문화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성공적인 행복한 노화 담론이 만들어내는 역설에 대해 주목한다. 행복한 노화 규범과 함께 그 속에서 소외된 이른바 성공적이지는 않은 평범한 노년의 감정들을 탐색한다. 셋째, 노인과 청년을 구분하는 세대론적 프레임¹⁾에서 노인의 감정을 특정한 정체성과 연결하는

1) 전상진(2018: 298-9)에 의하면, 세대 프레임은 세대 언어의 매력을 극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세대 프레임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세대의 틀로 정의하고, 특정 세대에게 책임을 묻고, 그 세대에게 벌을 가하거나 그들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다른 세대에게 보상하는 식의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그는 세대의 명칭이나 속성보다 그것의 '활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시각에서 벗어나 노년의 감정 구조가 어떻게 현재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과 얽혀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이 단순히 노쇠하고 늙은 수동적 존재가 아닌 사회를 변화시키는 정치적 주체로서 출현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논의 대상은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노년 다큐멘터리 서사들을 중심으로 노년기 삶을 행복한 대상으로 구성하는 대중적 서사들을 선별하고, 이와 동시에 이러한 재현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작품들을 선정해 비교 고찰했다.

우선, 기존의 대중적인 노년서사에서는 대중적 주목도가 높은 작품 중에서 기존의 노년 서사를 대표하는 작품들을 분석했다. 즉, 주류화된 노년 서사는 대체로 행복한 노년의 풍경을 그리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세부적인 공통성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리적으로 농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주인공 노인들은 농촌에서 나고 자랐으며 농업을 통해 가족을 부양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예컨대, 대중적 호응이 높았던 《위낭소리》(2008), 《넘아, 그 강을 건너서 마오》(2014), 《칠곡 가시나들》(2018), 《시인 할매》(2018) 모두가 농촌을 배경으로 한다. 그리고 이들 서사의 또 다른 공통점은 연령대 면에서 대부분 80세를 넘긴 후기 노인들이고, 성별로는 여성이 현저히 많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는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해왔으며, 일제강점과 한국 전쟁과 같은 경험을 공통으로 지니고 있다. 아울러 근대적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는 점도 비슷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 속 노인들은 가난하고 늙고, 죽음에 가까운 시점이지만 현대인들에게는 ‘행복한’ 노년의 삶의 모습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한 노년 서사들은 노년기 삶의 감정들을 단순화하고 사회 현실로부터 분리된 비정치적인 것으로 보이도록 만들 수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대중적 인기를 얻은 노년서사들과 경합하면서 구성되고 있는 이른바 ‘평범한’ 노년의 서사화에 대해서도 주목하고자 한다. 이 작품들은 평범한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노화의 감정이 단순하지 않으며 우리 사회의 현실과 분리된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성찰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부산 영도에서 도시재개발 계획이 소외시키고 있는 주변부화된 도시 노인의 삶을 보여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2015),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 시위를 벌이는 박정희 세대 노인들의 삶을 추적한 《미스 프레지던트》(2017), 자살을 시도했던 할머니의 삶을 손녀의 시각에

주장한다. 현 사회가 세대론을 사회정책 담론과 과학 분야에서 도구화되는 경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세대의 속뜻이나 본래적 의미에 상관없이 세대를 말하는 사람이 나름의 이익과 의도에 따라 그것을 활용하는 정도가 강해졌다고 비판한다.

서 기록한 《할머니의 먼 집》(2015), 후처와 본처로 만나 평생 한 집에서 산 두 할머니의 이야기를 담은 《춘희막이》(2015) 등은 기존의 주류화된 행복한 노년 서사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던 노화의 사실적 모습과 마주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밀양 아리랑》(2014)과 《소성리》(2017)와 같이, 농촌에서의 노화가 단순히 목가적일 수 없으며 오히려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문제들이 응집된 장소로 바라보도록 만드는 작품들도 문제적이다. 예컨대, 이러한 노년 서사들은 특별한 노년이 아닌 평범한 노년의 삶에 주목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노년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노인의 진정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 의의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열거한 서사들은 근본적으로 노인 스스로를 말하는 주체로 구성하는 데 일정한 한계점을 드러낸다. 즉, 카메라 렌즈를 통해 재현된 노인의 모습은, 직접적으로는 감독의 시선에 의해, 간접적으로는 문화대중의 시선에 의해 재(再)-재현된 것으로서, 일정한 서사 목적에 의해 서사화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노년 다큐멘터리 서사의 ‘말하는’ 주체는 노인 자신이 아니라 문화대중 혹은 감독이라는 본질적인 물음이 가능해진다. 그것은 노인의 삶을 초점화한다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을 타자화하는 문화적 시선을 반복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가 자신들의 삶을 기록하고 사유하는 과정, 즉 노인 자신이 재현 주체로 구성되는 서사의 발굴 또한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비록 이 글의 주요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다큐멘터리 영화 작품은 아니지만,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노화 과정을 주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임계장 이야기』(조정진, 2020)를 논의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중요한 것은 이 책이 지방 소도시에서 정규직 노동자였다가 퇴임 후 임시계약직 노동자로 사회적 위상이 바뀐, 이른바 은퇴 후 노년기 삶(60대)을 자전적으로 기술한 노동일지라는 점이다. 사실상 대부분의 대중화된 노년 서사가 변화를 겪지 않는 농촌·후기 노인의 삶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고찰의 의미가 적지 않다. 고용 불안정성과 함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은퇴 이후 노년기 삶의 문제는 이미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Table 1> 참조).

〈Table 1〉 Documentary films and literature about aging: 2008~2020

Title	Year	Genre	Age group	Area	Stage	Event
<i>Old Partner</i>	2008	Documentary	80s	Bonghwa-gun, Gyeongsangbuk- do	Hom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w and the old
<i>Miryang Arirang</i>	2014	Documentary	70, 80s	Miryang-si, Gyeongsangnam- do	Home/ Demonstration site	Protest against the construction of a transmission tower
<i>My Love, Don't Cross That River</i>	2014	Documentary	90s	Hoengseong-gun, Gangwon-do	Home	Daily life and bereavement of old couple
<i>Still and All</i>	2015	Documentary	80, 90s	Yeongdo-gu, Busan	Home/ Workforce	Elderly people living in urban development areas
<i>Dear Grandma</i>	2015	Documentary	90s	Hwasun-gun, Jeollanam-do	Home	Suicide and depression in the elderly
<i>With or Without You</i>	2015	Documentary	70, 90s	Yeongdeok-gun, Gyeongsangbuk- do	Home	Old age work and family relations
<i>Chungchun Choir</i>	2017	Documentary	Average 65	Urban Cities	Chorus practice room	Formation of the Senior Choir
<i>Miss President</i>	2017	Documentary	Generation Park Jung Hee	No Specific Area	Home/ Demonstration site	Taegeukgi rally
<i>Soseongri</i>	2017	Documentary	70, 80s	Seongju-gun, Gyeongsangbuk- do	Home/ Demonstration site	Protest against THAAD
<i>Granny Poetry Club</i>	2018	Documentary	Average 86	Chilgok-gun, Gyeongsangbuk- do	Home/ Korean language school	Korean language school and old age friendship
<i>The Poem, My Old Mother</i>	2018	Documentary	Average 80	Gokseong-gun, Jeollanam-do	Home/ Korean language school	Korean language school and a peaceful old life
<i>Butterfly</i>	2018	Documentary	90s	Hadong-gun, Gyeongsangnam- do	Home	Daily life and bereavement of old couple
<i>Im-gye-jang Story</i>	2020	Documentary Literature	60s	Provincial cities	Workforce	Retired old man life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서사들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노화담론으로 자리하고 있는 성공적인 노화 담론과 얽힌 행복한 노화 감정의 정치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II. 성공적 노화 담론과 ‘행복한 노년’의 감정규범

성공적인 노화 담론의 문화적 규범은 활동적이고 긍정적이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년기 삶에 대한 이미지들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고립되고 소외된 노년기 삶에 대한 과거의 통념들을 극복하고, 노년기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고 생산적인 삶을 지속해가는 ‘행복한 노년’이 문화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들은 사실상 성공적인 노화 담론이 하나의 특정한 방식의 감정 규범과 결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대표적인 문화 규범은 신노년 또는 신중년 담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노년 담론은 암울하고 고독한 노년을 상상해온 기존의 문화 규범들을 대신하는 새로운 노년의 삶을 제시해오고 있다. 신노년 세대라는 문화적 표상은 기존 노년세대에게 부과된 ‘늙음’과 ‘의존성’을 탈피한 독립적이고 여전히 젊음을 간직한, 어떤 면에서 중년의 연장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부각한다. 말하자면 신노년이란 독립적인 노후를 설계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높은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노인들이다. 따라서 신노년 담론은 전통적인 노인들과 구분되는 서구화된 선진문화와 물질적 풍요를 경험한 존재들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며, 무엇보다 은퇴 후 자산을 기반으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는 노년의 이미지를 강조한다.²⁾ 노인을 주변인화해온 연령주의적 시선을 벗어나 긍정적인 노년기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하는 신노년 담론은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인 노화 담론으로 자리잡았다. 신노년은 일종의 새로운 모델로서 현재의 노인 문화를 이끄는 전위의 역할을 부여받는다(김은준, 2017: 221; 한경혜·윤성은,

2) 김은준(2017: 173)은 조선일보의 신중년 담론이 늙은 신체의 주인으로 인식되어 왔던 노인을 새로운 대상으로 규정해 내면서 노인을 지칭하고 재현하고 해석하는 체계를 리뉴얼하려 한다고 설명한다. 즉, 신중년 담론에서 다루지는 6075세대는 더 이상 뒷방 늙은이가 아니며 노쇠한 육체나 노동력 상실의 세대, 빈곤의 대상,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정적 존재가 아니다. 이들은 완전히 상반된 새로운 개념의 노인으로 등장하는데, 경제적 효용성을 잃지 않는 집단으로서 나이가 들어도 노동과 소비를 담당할 수 있는 주체로 그려진다.

2007).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러한 성공적 노화 담론은 감정적 차원에서 불행하고 고독하고 노쇠한 노인의 삶이 아닌 행복하고 독립적이며 활동적인 노인의 삶과 더 잘 부합한다. 성공적 노화가 만들어내는 문화 규범은 바로 이와 같은 ‘밝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기 감정 규범을 모델로 구성된다.³⁾

하지만 한혜경·윤성은(2007)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감정규범은 사실상 성공적이 지 않은 평범한 더 많은 노인들을 주변화시키는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꾸준히 비판을 받아왔다.⁴⁾ 성공적인 노화 담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것과 얽힌 문화적 감정규범이 역설적으로 실제 대다수의 평범한 노인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노화 담론이 성공/평범의 이분법적 시각으로 노인을 구분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행복/불행의 스테레오타입화된 노인 감정으로 이분화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시몬느 보부아르(Beauvoir, 1994)가 노인의 이미지를 사회적으로 생산된 것이라고 설명했듯, 노화의 감정이란 노화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감정이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구성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헵워스(Hepworth, 1998; 2005)가 노화의 경험이 주관적인 경험이라 하더라도 사회적인 범주화에 의해 조정된다고 말한 것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⁵⁾ 즉, 노화의 감정은 젊음에서 늙음으로 이동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의미화’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3) 다큐영화 《청춘합창단》은 2017년 TV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 노인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청춘합창단 단원들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작품으로, 주제는 이 작품의 부제 ‘또 하나의 꿈’이 말해주듯 활기찬 신노년 혹은 신중년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되어 있다.

4) 한혜경·윤성은(2007) 신노년 담론에서 제시되는 이상적인 노인 모델이 계층적으로 주류 사회 노인이라는 점 때문에 일반적인 평범한 노인을 배제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노인의 삶은 이러한 신노년 문화 담론 속에서 오히려 더 소외되는 역설적 현상을 우려한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 담론이 구성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어떤 문화정치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5) 로자노바(Rozanova, 2010)은 노화와 노년기란 지식과 이미지, 신체들에 대한 문화적 생산을 증가하는 사회적으로 구성된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시대마다 다르게 노화의 개념을 구성해왔다는 것으로도 증명되는데, 예컨대 르네상스 시대에는, 살아있는 영원성의 가능성이 과학적 완고함과 대중적 환영과 함께 추구되었다. 19세기에는 의학적, 인구학적, 그리고 보험산업 투자 등이 인간 수명이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장수에 대한 환영적인 전근대 이미지들이 수정되었다. 포스트모던 문화에서는, 끝없는 생명에 대한 소원이 다시 활기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전통적인 생애과정 경계들을 흐릿하게 하고 영구적인 젊음의 소비 이미지를 통해 만들어진다. 로자노바는 이것이 헛되이 미래를 식민화하려고 시도하는 대신, 미래 자체를 현재 안에 융해시켜버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한때는 미디어에서 시니어들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재현됐지만, 지금은 이와 상반된다. 즉, 과거에는 노인들을 노망되고, 어리석고, 추하고, 미숙하고, 비생산적이며, 건강하지 않고, 옷을 나쁘게 입고, 얹아만 있으며 활동하지 않는 존재로 표현했다. 지금은 노인들에 대해 건강하고, 열정적이고, 생산적이고, 매력적이고, 영민하다는 등 긍정적으로 말할 때가 월등히 많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들은 노화와 노년기의 의미가 문화사회적으로 구성된 생산물들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컨텍스트 안에서의 상호관계성이라는 것이다. 성공적인 노화 담론이 젊음과 늙음을 나이로 구분하는 연령주의를 극복하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노인이라는 집단을 새롭게 구분하는 경계들을 양산할 수 있다(정경희, 2006; 최희경, 2010; 김정석·조연현, 2017). 즉, ‘신’노년과 ‘구’노년을 구분하는 담론적 재현을 통해 노인 내부에서 젊음과 늙음을 구별하게 만든다. 젊음/늙음의 이분법은 수정되지 않고 반복된다. ‘젊음’과 ‘늙음’이 노인 정체성 안에서 다시 재생산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노화 감정의 스펙트럼 대신 노화의 감정을 재-스테레오타입화 하는 문화적 시선이 재생산됨으로써, 젊음/늙음의 경계를 비판/긍정의 감정 규범으로 해석하는 시선이 만들어진다. 성공적 노화를 행복한 것으로 바라보도록 만드는 감정 규범이 구성되는데, 이는 로자노바(Rozanova, 2010)가 지적했듯, 성공적 노화 담론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위계학이라 할 수 있다. 성공적인 노화 담론이 역설적으로 성공적이지 않은 삶의 유형을 주변화하고 낙인을 찍을 수 있다(Rozanova, 2010: 215).

이러한 노인 안에서의 구별 짓기는 사실상 젊음/늙음 감정 규범을 윤리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노화의 성공/평범의 구분은 감정적으로 좋은 노화와 나쁜 노화에 대한 구분을 은연중에 만들어낸다. 신진숙(2019)은 성공적 노화 담론이 성공/평범으로 노인의 삶을 범주화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감정적 윤리 규범으로 번역하도록 만든다고 비판한다. 또한 우리 사회의 대중화된 노인 다큐멘터리들이 이러한 감정 규범과 얽혀 노화의 감정을 왜곡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다양한 노년 서사들이 노화를 어떻게 느끼고 또 어떤 느낌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감정 규범들을 번역하고 실천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로드맵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라 아메드(Ahmed, 2010)가 논의한 ‘행복한’ 감정의 문화 정치에 대한 논의가 노화 담론의 감정 규범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행복의 약속이 어떻게 그것을 부정하는 감정들과 상호작용하며, 문화적으로 어떤 정동적 약속으로 구성되는지를 살펴본다. 아메드에 의하면, 행복의 정동적 약속이란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느껴지는 부정적 경로들을 통과하면서 구성된다. 여기서 정동(affects)은 감정(emotions)과 달리 주관적 질을 아직 획득하지 않은 상태의 신체적 반응을 포괄하여 이르는 말이며, 흔히 정동과 감정 사이에는 명확한 경계가 그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정동적 반응들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집합적 감정들이 구성되며,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감정의 구조 역시 이러한 정동화 과정의 결과로서 출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정동적 약속은 하나의 대

상이 하나의 느낌의 원인이 된 후 그 대상에 대한 상상만으로도 그러한 느낌이 확증되는 과정을 일컫는다. 즉, 좋음에 대한 판단이 그것과의 마주침 이전에 선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아메드에 의하면, 행복한 대상이란 그것에 대한 상상만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을 지칭한다. x를 하거나 x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그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Ahmed, 2010: 29). 행복한 대상들은, 만약 당신이 이것을 갖거나 저것을 가질 때 혹은 이것을 하거나 저것을 할 때 행복이 뒤따른다는 논리와 함께 구성된다(29).

행복의 약속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대상의 추구이며, 불행한 대상을 멀리하는 것이다. 또한, 아메드의 논의를 살펴보면, 행복의 약속이란 본질적으로 현재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뒤에 무엇이 뒤따라올 것인지에 대한 기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들은 사물들을 의미화하는 동시에 차등화한다. 즉, 행복의 기대는 미래의 특정한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으며, 행복의 약속은 이런 저런 것들을 ‘하거나’ ‘소유하는’ 형식으로 구현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행복한 대상들이란 우리에게 기쁨을 유발함으로써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진 것들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행복한 대상을 취할 수 있는 올바른 행동, 즉 행복한 수행들(happy performatives)을 행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행복한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불행한 대상’과 연결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복의 약속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대상이 ‘상실’되는 일이 먼저 발생해야 한다는 점이다. 행복한 대상의 부재 혹은 결핍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행복을 욕망하도록 만드는 역설적 힘이다. 행복의 약속이 대상의 상실과 함께 보상의 원리로 주어지기 위해 그 대상의 부재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복과 불행 사이의 순환을 통해 노화의 의미와 감정 규범이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사람을 향해 기쁨을 연상시키는 감정들이 달라붙고, 반대의 감정들은 제거된다. 행복의 약속을 실행하는 과정에 이미 노화 감정의 문화적 정치가 작동하는 것이다. 이 경우, 노인의 삶은 ‘행복과 불행’이라는 프레임으로 단순화된다. 노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다채로운 스펙트럼은 간과된다. 즉, 아메드(Ahmed, 2010: 45)의 시각을 따른다면, 문화적 차원에서 특정한 모습으로 구성된 ‘노인’ 신체 이미지는 다른 신체보다 월등하게 행복의 약속을 품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노년 서사는 노화 자체를 향한 특정한 정동적 가치를 형성하고 있다. 아메드가 부르디외의 용어를 인용하여, 정동의 문명화(the civilization of the affect)라고 기술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대중적으로

성공한 행복한 서사는 한 사회 안에서 감정에 대한 도덕 경제적 근간을 제공한다. 그것들은 행복한 노년에 대한 정동적 약속임과 동시에 행복하게 노화해야 할 의무를 암시한다. 성공적 노화 담론과 노화 감정에 대한 통제와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서사화의 과정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공적 노화 담론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노화 감정을 단순화하지 않는 시각 또한 요구된다. 노화에 수반되는 일상적인 감정들까지 포함하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노화의 감정을 재현하는 장(場)의 확대가 필요하다. 예컨대, 아메드(2008)가 말한 이질적 존재, 즉 행복의 약속을 깨뜨리는 그러므로 정동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이방인(affect alien)으로 재현되는 노년의 이미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동적 소외자로서 노인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문화대중이 향유하는 행복한 노년 서사에서는 충분히 가시화되지 못한 부분이다. 그것은 행/불행의 감정 구조만으로는 해석될 수 없다. 로자노바(Rozanova, 2010)가 지적하고 있듯, 성공/실패의 이분법에서 벗어나 노화의 연속성을 설명하는 시각이 요구된다. 기실 사람마다 성공적 노화의 기회들이 다르고 문화적 차이들 안에 존재하는 변수들도 다양하다.⁶⁾ 이런 맥락에서 김은준(2017)은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정부 정책, 미디어 보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생산되고 있는 노인담론이 공통적으로 이 시대의 환영받는 노인의 삶을 사회경제적 독립으로 이해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비판한다. 노인은 사회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으로는 젊은 세대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 노화 감정과 연결된 우리 사회의 통치성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시각들을 토대로 2000년대 다큐멘터리의 노년 서사들에서 노화 감정의 텍스트가 어떻게 구성되고 이를 통해 구성되는 노화 감정의 문화 정치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6) 김정석조현연(2017)은 생산적 노화 담론은 시장의 자유를 옹호하며 그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비판한다. 즉 1970년대와 1980년대 특세한 신자유주의적 분위기와 맞물려 은퇴와 연금에 대한 공공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 전개되고, 그 해법 가운데 하나로 등장한 것이 성공적 노년 담론이라는 관점을 제시한다(18). 즉, 그것은 인구고령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직접적으로 맞물려서 전개되었는데, 활동이론의 연속선상에서 나이가 들어도 생산성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노년의 개념을 긍정적으로 재구성하는 시선으로, 궁극적으로는 노인의 역할을 재평가하여 노인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18).

Ⅲ. 노년 서사를 통해 본 노화 감정의 복잡성과 정치적 가능성

1. 행복한 노년 서사를 소비하는 사회

노년의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치 판단은 주관적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어떤 삶이 행복한 노년인가에 대한 통념은 노화 감정에 대한 문화 정치와 얽혀 있다. 고령(화)사회는 현 인류가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삶으로서, 현재까지도 어떻게 늙어 가야 하고 늙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범들이 끊임없이 제안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고 노년에 도달한 노인의 삶을 노화의 역설 혹은 완성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는 시각들은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노화 감정 규범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노년 다큐멘터리 서사들은 단지 노인의 삶을 소재로 하고 있다는 사실 이상으로, 하나의 특정한 방식으로 노화 감정의 의미를 정향(定向)시키는 정동적 약속을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위낭소리》와《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등 노년 다큐멘터리 서사의 대중적 인기는 우리 사회가 욕망하는 행복한 노년의 풍경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예컨대, 노년의 삶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들 중 하나가 ‘집’의 상징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 속 노인들은 현대인이 상실한 후 되찾고자 하는 ‘이상적인 집’의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다. 그것은 단지 행복한 노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자체로 이미 대중 사이에 ‘행복한 대상’으로서의 노년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정동화(affectation)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동화 과정을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행복한 노년에 대한 정동적 약속이 구성되는 조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그것은 무엇보다 삶의 ‘단순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즉, 노인의 삶이 지닌 단순성과 행복한 감정 사이에 하나의 단일한 인과성이 구성된다. 행복한 대상을 향한 올바른 경로를 따라가기만 한다면, 즉 감정적으로 정렬되기만(aligned) 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정동적 약속이 제시된다. 예컨대, 노인들 대부분이 농촌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항목이다.⁷⁾ ‘행복한 농촌의 노인들의 삶은 [도시에서와 다르게] 단순하다. 그들은 경쟁하지 않는다. 그리고 변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것은 “선택이 단순한 세상, 올바른 선

7) 이러한 맥락에서 신진숙(2016; 2019)은 《위낭소리》,《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칠곡 가시나들》, 《시인 할매》등과 같은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행복한 노년 서사들이 농촌의 목가적 이미지와 결합한 사례에 대해 분석한 바 있다.

택에 대한 보상이 보장되고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선택의 실수가 불가능한 세상”(바우만, 2013: 154)이다. 이러한 단순하고도 인과적인 서사의 구성을 통해 농촌의 노인들은 복잡한 현대 세계로부터 분리된 세계에 살며 현대세계가 추구하는, 잃어버린 안정성을 이미 획득한 것처럼 묘사된다. 《워낭소리》에서 평생 농사를 지어온 최원균 노인의 삶이 그렇고,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노부부의 삶이 그러하다.⁸⁾ 그들의 삶은 현대인과는 다르게 해가 뜨고 지는 자연스러운 시골의 풍경 속에 녹아들며, 풍경과 노인 사이에는 어떠한 이질적인 것도 끼어들지 못한다. 이들의 안정적인 삶은, 현재 대부분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진정한’ 것으로 인식된다.

이런 방식으로 행복한 노인의 ‘집’은 다른 장소들과 정동적으로 구별된다. 요컨대, 그곳은 도시인들 내부에 자리한 ‘집에 대한 열망’이 구현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도시인들은 불안정과 불확실성이 증폭된 공간에서 살아간다. 도시인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대체로 파편화된, 평화가 없는 삶의 질서에서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노인의 집은 바로 이러한 도시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야말로 ‘안전한’ 장소이다. 행복한 노년의 이상적인 집은 도시와 달리 집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나 정교한 기술, 엄청난 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로지 집으로서의 가치만을 지닌 장소로 제공된다.

둘째, 이러한 과정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행복한 대상들 사이의 인접성을 구성한다. 행복한 노년과 연결된 좋은 감정들을 유발하는 대상들이 연합한다. 예컨대 《워낭소리》에서는 소와 흙과 농촌 마을이 하나로 엮혀 거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할아버지는 소와 함께 밭에서 일하고 꿈꾸고 숨 쉰다. 그렇게 행복한 대상들이 인접한 하나의 세계가 완성된다.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노부부 역시 그들이 사는 집과 분리되지 않는다. 집과 강아지, 기억(고통스러운 것이든 아니든) 모두가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의 기억으로 자리한다. 노부부의 모든 감정들과 집의 풍경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며 분리할 수 없게 된다.⁹⁾

8)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보다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비슷한 주제를 가진 다큐 영화 《나 부야 나부야》도 있다. 여기에서는 90세를 넘긴 할아버지가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더 나이 많은 할머니와의 이별이 중심 내용을 이룬다. 아내가 떠난 후 홀로 남겨진 할아버지는 같이 살자고 하는 자식들의 권유도 뿌리치고 자신이 살아온 집에서 고독하게 살아가는데, 그는 대부분 영화 장면에서 과묵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9)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칠곡 가시나들》과 《시인 할매》도 논의 가능하다(신진숙, 2019). 여기에 등장하는 할머니들이 쓴 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한 행복한 대상들 사이의 연합이 얼마나 핵심적인 감정의 구조인지를 보여준다. 영화 《칠곡 가시나들》의 마을 노인들이 쓴 시들을 묶은 시집 『시

셋째, 이는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복한 대상들이 ‘가족’이라는 또 다른 행복한 대상을 경유하는 과정이다. 아메드(Ahmed, 2010: 45)가 말했다, 가족은 행복한 대상이며, 행복한 가족들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를 묶는 정동적 공명이 등록되어 있다. 가족적 분위기와 공간이 말해주듯, 가족의 이야기가 녹아 있는 집이라는 장소는 노년의 행복이 존재할 수 있는 토대이자 원인이다. 행복한 노인들에게 집이야말로 삶의 근거이다. 그들에게 가족은 모든 삶의 권한들, 말하자면 시간, 에너지, 자원을 분배하는 모든 힘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장소이다. 따라서 행복한 노년의 삶은 집이라는 장소를 떠나서는 재현될 수 없다. 예컨대, 《위낭소리》의 할아버지는 그의 전 생애에 걸쳐 소와 함께 살아왔다. 그는 자신의 노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소와 집을 떠나지 않았다.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할머니 역시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한평생을 살아왔다. 배우자인 할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은 이러한 삶에 대한 보상일 것이다. 때문에, 임정식(2017)은 이 두 작품의 의미에 대해, 산업화, 도시화, 고령화된 현대사회에 부재하는 요소를 표현하고, 그 요소들이 관객들의 결핍 의식을 충족시켜줌으로써 환상물로 수용된 영화라고 지적한다. 하나의 장소에서 행복하게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노인들의 모습을 문화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며 살아가야 하는 대중의 무의식적 우울감을 표상한다.

이와 같은 감정의 서사는 《칠곡 가시나들》과 《시인 할매》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된다. 오랜 세월 한글을 배우지 못할 만큼 고된 삶을 살아왔으나, 그렇게 견딘 삶은 이제 노년에 이른 할머니들을 더없이 여유롭고 행복한 존재로 회고하도록 만들어준다. 신진숙(2019)은 이러한 노년의 행복이, 비록 평범하지만, 삶의 고난을 가족을 위해 극복하고 견뎌온 자에게 주어지는 상장과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노년의 행복과 도덕적 가치는 노년의 감정을 어떻게 견디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특히, 시 쓰는 농촌 할머니 서사와 같이 대중의 호응을 얻은 성공한 노년 서사는,

가 뭐고?』(강금연, 2015: 18)에 이런 시가 있다. “자연과 노인의 감정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 정동화된 장소들이 잘 그려져 있다. 예컨대, “참 따뜻하다/ 감나무밭 김을 멘다// 꽃다지는 노랑꽃을 뽀내고 /냉이꽃은 흰꽃을 뽀내고/ 뽀장꽃은 보라색으로 뽀내고// 그러나 어쩔 수가 없구나// 햇빛에 고라 있는 꽃다지 냉이꽃 뽀장꽃/마음이 아프다”(김숙이 할머니의 시). 이 시에서 보듯, 대기의 기온과 꽃, 그리고 땅과 할머니 사이에 어떠한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 분위기가 농촌 마을 할머니들의 주요 감정으로 이해되는 것이 보통이다. 물론 덜 주목을 받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위 인용문의 시에서 관찰되듯, 할머니들의 감정 구조 속에는 반드시 행복한 감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행복이라는 감정 아래 놓여 있는 진정한 느낌은 ‘아픔’이다. 이 아픈 마음들이 행복의 메시지를 더 강조하도록 만드는 배후 감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농촌의 말년 노인들에게서 특정한 미덕을 발견하는데, 비록 가족들과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가족들을 위해 노인들이 견디고 수용하는 고독과 외로움의 가치이며, 이러한 노화의 감정이야말로 노인들의 모습을 숭고하게 만드는 중심 감정으로 재현한다(신진숙, 2019).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러한 시각의 뒷면에, 삶의 의미가 우리 내부의 바로 그 과거로부터 온다는 재현의 논리가 숨겨져 있다는 점일 것이다. 노년의 삶을 행복한 대상으로 재현하는 과정은 우리 시대의 다양한 과거 회귀적인 감정들과 공진(共振)한다. 우리가 망각하고 있던 노인들의 삶 속에서 불확실한 현재의 삶을 치유할 가치를 찾으려는 시각이다. 노년의 행복한 장소들과 현대인이 추구하는 레트로토피아적 상상이 조우한다. 여기서 레트로토피아(retrotopia)¹⁰⁾란 미래에 대한 약속과 기대가 사라진 세계에서 사람들이 과거의 추정된 안정성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회귀적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즉,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한 현재 속에서, 과거에 한 번 성공했으나 시험되고 너무 빨리 폐기돼버린 것으로부터 새로운 삶의 참조점을 얻으려는 것이다(바우만, 2018: 33). 불안정성이 심화된 사회에서 사람들은 안정적인 ‘평범한 삶’에 대한 꿈을 재생산한다(Anderson, 2014: 126). 농촌 노인의 안온한 삶은 바로 이러한 사회의 감정적 분위기에서 출현한, 현대세계의 해독제로서 기능한다고 말할 수 있다.¹¹⁾ 노인들이 살고 있는 보통의 평범한 삶이야말로 새로운 정상성(normativity)을 발견할 진정한 장소로 재구성된다.¹²⁾ 거의 100년을 고통스럽지만 견뎌낸 노인들의 삶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행복을 이미

10) 바우만은 우리 시대가 뿔어내는 좌절감에 증독된 희망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환상이 깨지면서, 격분한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의 회귀 움직임에 열망을 투자하는 마음의 경향을 레트로토피아라고 부른다. 그것은 “아직 발생하지 않아 존재하지도 않는 미래에 의지하는 대신에 잃어버렸고 뺏겼으며 버려졌지만 아직 죽지 않은 과거에 대한 비전(vision)이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이다 (바우만 2018: 28).

11) 실제로 이러한 다큐멘터리를 소비하는 계층은 후기 노인들인 경우는 드물다.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분석 대상으로 삼은 영화마다 주요 소비자 연령이 대부분 20대이다(네이버영화 홈페이지, 2020/2/15일 검색). 노인 영화관 공간 기획을 제시한 이해옥의 논문(2014: 64)에서도 알 수 있듯,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나타나는 다양한 문화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문화적인 커뮤니티생활을 위한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노인정 등 범규상 계획기준에 따른 제한적 시설이 대부분이다.

12) 김홍중(2018: 141)은, 그의 골목길 풍경에 대한 분석에서, 노스텔지어 감정의 출현을 ‘97년 체제 이후 한국사회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불안의 동학’으로 설명한 바 있다. “야만적인 신자유주의적 삶의 원초적 상처들이 분비하는 불안의 감정들”이 노스텔지어적 상상력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노년 서사에 등장하는 노인의 집 또한 이러한 향수어린 시선들과 결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신진숙(2019)이 농촌 노년 서사를 중심으로 노스텔지어적 감정들이 어떻게 장소의 경관과 결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관점들이 제공되고 있다.

보증하는 장소로 재(再)-재현되는 이유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복한 노년 서사는 문화대중 사이에서 노화를 ‘행복한 대상’으로 느끼도록 만드는 특정한 방식의 감정적 로드맵을 제공한다. 행복한 대상으로 상상된 노년 이미지 주변으로 대중의 희망이 점착되고, 느낌들이 순환하면서 ‘행복한’ 감정을 노인의 신체에 다시 투사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그 결과 노후의 어두운 감정들은 이러한 행복한 감정을 강조해주거나, 또는 곧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구성되고 만다.

2. 노인의 집과 장소 상실의 경험

노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불안은 개인적인 심리 문제로만 치부될 수 없다. 그것은 현대세계의 변화 속에서 구성되는 보편적인 경험과 감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중적인 노년 서사들에서 노인들의 감정은 세계-내-감정이 아닌 세계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재현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노년기 삶을 도시나 현대성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보는 시각을 투사함으로써, 복잡한 현대세계의 변화 속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는 노인 정체성이라는 인식 틀을 문화적으로 정당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고정된 재현 틀은 성숙한 노인 감정에 대한 규범화된 묘사를 제공하면서 실제하는 노화의 감정에 대해서는 부수적인 것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하지만, 앞의 작품들보다는 충분히 조명을 받지 못했으나 의미가 있는 두 작품, 《춘희막이》와 《할머니의 먼 집》을 살펴보면 이처럼 노화의 감정을 단순화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분명해진다. 즉, 이 두 작품에는 노년의 ‘성공/평범’을 ‘행복/불행’으로 간주하는 통념화된 감정 규범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두 작품 모두 행복한 노년이라는 특별한 가치에 의거해 노화의 진실들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지 않는다. 일상에서 발견되는 평범한 사건들의 흐름을 따라 사실적으로 노인들의 삶을 기록한다.

주류화된 행복한 노년 서사에서 노인의 정체성은 다른 세대들과 분리된, 순수하고 경쟁하지 않는 반-현대적인 존재로 상상되곤 한다. 청년 세대의 불안정한 감정들과 상반되게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말년 정체성이 부여된다. 이상적인 노인들은 비록 문명의 속도로부터 뒤쳐져 있으나 문명의 해악을 비껴간, 오히려 문명 자체를 치유하는 힘을 지닌 존재로 구현된다. 이러한 상상적 재현은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적으로 형성된 노인의 사회적 위치와도 잘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존

대중 다큐 영화 속에서 순수하고 동심 가득한 노인의 이미지는 이들이 사회적 약자이며 따라서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연령주의적이고 세대론적 분리 시선들을 은연중에 강화하는 논리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우선 《춘희막이》와 《할머니의 먼 집》에 등장하는 할머니들을 통해 사회적으로 노인을 타자화하는 일반적인 시선들과 다른 재현의 논리를 사유해보고자 한다. 특히, 두 작품 속 노인(여성)의 삶이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도 그렇다고 인생의 완성 단계로도 재현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실 두 작품 모두에서 할머니들은 특별한 존재들로 치부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의 노년기 삶의 과정은 변화하는 현대세계와 깊이 연결된 과정으로 재현된다. 즉, 《춘희막이》에서는 한평생 같이 살아온 ‘춘희’와 ‘막이’ 두 할머니의 가난한 농촌 집을 무대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둘은 이른바 본처와 후처의 관계로 만나 같은 집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이이다. 이들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두 할머니 모두 대부분의 농촌 노인들처럼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간다. 특히 막이 할머니는 지능이 떨어지는 춘희 할머니를 대신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신이 죽은 후 혼자 남겨질 춘희 할머니를 걱정하면서 그녀를 요양시설에 보낼 수 있도록 90세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돈을 저축하기 위해 농사일을 멈추지 않는다. 막이 할머니는 (춘희 할머니를 보살피는 역할을 포함하여) 평생 가족들을 위해 살아온 존재이다. 그럼에도 생계를 위해 여전히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식들로부터 특별한 경제적 원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들이 없는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들어온 춘희 할머니나 이러한 관계에 순응해야 했던 막이 할머니 모두 가부장제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들의 삶이 특별하게 미화되거나 숭고한 것으로 그려지지는 않는다. 노년의 신체적 고통과 복잡한 가족관계에서 오는 단순하지 않은 노화의 불안정한 감정들이 그려지고 있을 뿐이다. 실제로 영화 속에서 막이 할머니는 춘희 할머니에게 자주 분노와 화를 표출하며, 춘희 할머니는 이런 막이 할머니의 감정을 모두 받아내며 살아간다. 이 둘이 겪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부장제의 그늘, 그럼에도 할머니들 사이에 형성된 깊은 감정적 유대감이 노화의 의미를 단순히 행복이나 불행의 정동으로만 해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할머니의 먼 집》에 출현하는 박삼순 할머니 또한 90세를 넘긴 후기 노인이다. 이 영화는 노인이 된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할머니가 어느 날 자살을 시도하면서 시작된다. 박 할머니는 막이, 춘희 할머니와 달리 소위 안정적인 중산층 가족을 이

루고 있다. 박 할머니는 농촌의 소도시에서 홀로 살아가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살을 선택했고, 손녀인 감독은 그 이유를 묻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다큐멘터리 영화 촬영을 시작하게 된다. 영화 속에서 손녀인 감독과 주인공 할머니는 특별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일하는 딸을 위해 어린 손녀의 육아를 책임졌던 경험이 있다. 그때 형성된 할머니와 손녀의 관계는 감독의 초등학교 시절 일기를 통해 잘 드러난다. 어린 시절 할머니와 형성한 이러한 감정적 유대 덕분에 손녀는 할머니의 자살 시도를 다른 가족 누구보다 안타까워한다. 물론 영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살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보다는 할머니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유해가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관객은 할머니가 자살을 시도하게 된 동기는 늙어가면서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역할 부재 때문인 것으로 드러난다. 할머니는 평생 가족들(예를 들어 자식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보살피는 ‘어머니’ 역할로 살아왔다. 하지만 그녀가 돌봐야 할 대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서 역설적으로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¹³⁾ 행복하지만 무력한 이와 같은 감정에 대해 할머니는 자신이 다른 가족들에게 “성가신”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보부아르(1994: 366-7)는 노인의 삶에 대해 성찰하면서 노인들이 느끼는 감정 중 자신이 쓸모없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공포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다. 즉, 노인들이, 자식들과 삶을 함께 하는 데 실패한 후 거의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 스스로를 격리된 “이방인”처럼 느끼기 때문이라는 지적한다. 90세를 넘긴 박 할머니가 자신이 자식들의 짐이라고 생각한 것도 자신이 평생 동안 수행해온 가족의 ‘어머니’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¹⁴⁾ 이는 노년기 삶을 안정적이며 고통 없는 완성된 단계로 단순화하는 문화적 재현들이 말하지 않는 것, 즉 노인의 삶에서 다른 연령대가 겪는 복잡한 역할 기대와 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난

13) 《할머니의 먼 집》의 할머니는 손녀가 “나랑 있으니까 좋지”하고 묻자, 할머니는 말한다. “좋지 좋기사. 든든하지, 혼자 있으면 아무 힘이 없잖. 저기 조금 누웠다가 또 이렇게 테레비 보다가... 오메 오래오래 살단 소리는 말어. 언능 돌아가십소 말해... 오래 살아서 밋할 것이나 요려고... 하느님이 데려가야 데려가야 가재. 억지로로는 못간다. 이래도 저래도 명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데려가면 죽어야 쓰겠다. (농약을 마시려다) 거기에 놔뒀버렸다 시방.” 할머니는 자신의 목숨을 하루빨리 마감하고 싶어 자살을 생각하면서 서서히 알콜중독자로 변해간다. 이 과정에 그녀의 삶을 지탱해온 짐의 의미 또한 크게 변해간다.

14) 영화 속에서는 제사를 치르기 위해 가족들이 모여 준비를 하는데, 할머니가 무엇인가를 돕기 위해 시도할 때마다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배려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등장한다. 그러나 할머니의 표정은 매우 어둡다.

상태가 과연 행복한 것인가를 묻고 있다. 즉, 박 할머니는 자신이 성숙한/완성된 노인(어르신)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기보다, 가족이나 사회 안에서 고통스러울지라도 자신의 역할을 유지하고, 이를 수행하며, 그 안에서 여전히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생산하는 주체로서 존재하기를 원한다.

이 점에서 노인의 집 또한 문화대중 사이에 통념으로 자리한 ‘이상적인 공간’과 같은 특별한 개념으로만 설명되지 않다. 예를 들어, 《춘희막이》의 할머니 집은 모든 삶의 여정을 마친 정적 공간으로 볼 수 없다. 그곳은 여전히 삶을 살아내야 하는 존재들에 의해 역동적으로 존재하는, 행복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한, 노동과 생활의 공간이다. 막이 할머니와 춘희 할머니는 늙고 병든 몸으로도 생계를 위해 농사일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되며, 막이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들의 수입을 걱정하고 계획해야 한다. 농사를 짓는 딸의 부탁으로 일당을 벌기 위해 장기간 외출을 했다 돌아오는 막이 할머니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 막이 할머니와 춘희 할머니 모두 스스로를 책임지기 위해 고된 농사일을 반복한다. 집을 이상적이고 행복한 장소로 재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잡한 농촌 현실이 제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농촌에서 부농이 아닌 이상 춘희막이 할머니와 같은 상황은 드문 일이 아니다. 정숙정(2018)이 말한 것처럼, 농촌여성 대부분이 가족 구성원에 대한 돌봄을 수행하고 가족 내 노인을 부양하는 존재들로 살았지만, 정작 자신이 노인이 되었을 때는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달라진 가족제도와 변화한 사회규범으로 인해 예상 밖의 노후를 맞이하게 된 농촌여성노인은 규범의 변화에 대한 해석 틀을 갖추지 못한 채 급격한 사회변화에 혼란을 겪거나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춘희막이 할머니의 집을 넉넉하고 여유로운 목가적 풍경으로 그릴 수 없는 이유이다.

같은 맥락에서, 노인의 집을 모든 사람들이 떠난 후에도 변함없이 그곳에서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고향의 이미지와 결합시키는 시선 역시 재고될 수 있다. 춘희막이 할머니가 집을 떠나지 않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가족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집에 남는 것이 자신들의 자율적인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이들이 결코 집을 벗어날 수 없는, 집에 속박된 존재라는 측면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단순히 행복한 장소감의 원천으로만 집을 재현하기보다 노인들(주로 여성들)이 현재 거주하는 지금의 장소 이외의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지 물을 수 있다. 기실 오늘날 이동성은 정치적 맥락들 속에서 중요한 척도로 이해되고 있다. 이동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정도에 따라 한 사람의 사회적, 계

층적 지위를 가늠할 수 있다(어리, 2016). 이 점에서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기를 희망한다는 오래된 통념은 정치-경제-사회적 맥락들을 통해 재 사유되어야 한다.

《할머니의 먼 집》에서 드러난 집의 의미를 보면 더 명확해진다. 이 영화 속에서 노인의 집은 변하지 않는 안정성과 함께 늙어가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감정들이 출현하는 불안정한 공간으로 표현된다. 즉, 박 할머니 자신에게 집은 삶의 장소이자 죽음을 기다리는 장소이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할머니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할머니의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한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박 할머니에게도 전달된다. 자식들이 부모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효의 실행이라고 간주되곤 한다. 이미 고령이 된 노쇠한 자신의 어머니가 죽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딸은 슬프지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손녀인 감독은 다르다. 자신의 어머니와 상반된 입장을 드러낸다. 할머니에게 영양제를 놓아드리려는 손녀와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할머니를 도와드려야 한다. 그러므로 영양제는 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할머니의 딸(감독의 엄마)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다. 가족 안에서도 할머니의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은 묘하게 엇갈린다.¹⁵⁾ 이러한 장면의 효과는 그것이 매우 현실적이고 평범한 한 가족의 모습으로 보이게 만든다는 점이다.

나아가 이 영화의 이러한 사실적 재현은 ‘노인의 집’을 인생의 완성 단계를 상징하는 시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가령 박 할머니는 가족들을 그리워하면서도 자식들에게는 의존하지 않는다. 그리고 함께 살던, 역시 60대를 넘긴 아들이 죽어 혼자 살게 되면서 할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알코올에 의지해 살아간다. 손녀가 방문하지 않는 동안 할머니는 집의 기억과 함께 멈춰 있는 것처럼 묘사된다. 이불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노쇠한 할머니의 모습이 자주 목격되고 이제 집은 점점 더 어두운 정동적 분위기에 압도된다.¹⁶⁾ 사실상 박 할머

15)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제작 과정에서, 할머니의 딸은 자신과 관련된 내용을 교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충분히 그녀의 시각에서 할머니에 대한 감정의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다고 영화 내용 속에서 판단하는 장면들을 삽입할 수 있었다고 감독은 제작 노트에 밝히고 있다(네이버 영화 홈페이지. 2019년 8월 27일 검색).

16) 예컨대, 《할머니의 먼 집》에서 손녀에게 주인공 할머니가 사람들이 이미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서럽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이러한 느낌의 부조화를 발견할 수 있다. 이 영화에서 노화의 감정은 죽음과의 긴장 속에서 복잡하고 이중적인 감정들을 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노인의 삶을 여전히 죽음에 대한 생각과 함께 삶의 의지들을 드러낸다. 하지만 할머니의 가족들이 무심히 던지는 말들에서도 알 수 있듯 주변 인물들은 그녀의 이 복잡한 마음에 대해 섬세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때문에 할머니는 죽음을 숙연히 받아들이는 것은 내적 규범으로 만들어간다. 하지만 그러는 가운데 가족들 안에서 할머니 자신의 죽음(자

니에게 집은 다른 어떤 장소보다 힘겨운 장소가 되어버린다. 바로 그 집에서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계단에서 떨어져 죽음을 맞이했으며 동시에 그녀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멀리 떨어져 있다. 할머니 집을 찾은 딸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 익숙한 이웃들도 대부분 고령의 나이가 되어 집을 떠나고 지역 커뮤니티 역시 현저히 축소되는 상황이다. 할머니는 집 밖으로 외출도 하지 않는다. 90세가 넘는 나이를 감안할 때 가족 이외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녀는 마치 집의 기억들과 함께 그 집에 갇힌 존재처럼 살아간다. 가족들 역시 이러한 할머니를 걱정하지만, 역설적으로 할머니의 유일한 바람은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기에 가족들은 할머니의 뜻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할머니에게 집은 여전히 유일한 안식처임에는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가족 이외에 다른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된 채 집에서만 생활하는 그녀에게 집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전통적인 의미의 집으로만 해석되지 않는다. 보부아르가 말한 것과 같이, “죽음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다른 전망이 없는 곳”(보부아르, 1994: 352)이 되어버릴 수 있다. 이는 집을 최우선적인 노년 공간으로 하는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 대안적 관계의 공간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화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마지막 장면에서는 손녀가 데려간 저수지의 아름다운 풍경 덕분에 할머니가 생의 기쁨을 느끼는 장면으로 마무리된다.

박 할머니를 통해 관찰된 노인의 집은 현대세계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안정적 공간으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의문을 제기한다. 영화가 재현하고 있는 불안정한 장소로서의 노인의 집은, 진정한 장소감을 잃고 대부분의 공간에서 무장소적 공간 경험이 일반화되어가는 현대세계 안에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기실 거의 모든 일상 공간들은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 속에서 장소와 인간 사이의 내적 친밀감 또한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펠프(2004)에 의하면, 익명적이고 소비적인 장소의 생산과 경험들이 지배적인 것이 되면서 장소로부터 인간의 경험이 소외되고 분리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현대세계는 피상적인 그러므로 비진정한 공간 경험과 장소 상실감이 일상화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¹⁷⁾ 그럼

살)과 그 자신의 늙음의 감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받지 못하는 정동적 소외의 과정을 피할 수 없다.

17) 에드워드 펠프는 장소에 대한 참된 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장소 정체성의 전체적 복잡성을 직접적이며 순수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그 경험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인위적인 사회적, 지적 유행에 매개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또 판에 박은 관습을 따르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이러한 태도는 장소가 인간 의도의 산물이고, 인간 활동을 위한 의미로 가득한 환경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장소에 대한 심오하고 무의식적인 정체성을 지니는

에도 많은 행복한 노년 서사들에서는 이러한 장소 상실의 경험을 치유하는 곳으로 노인의 집을 재현하고자 한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집과 같은 전통적인 장소감들이 사회-정치-경제-문화적 맥락들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 노인의 집 또한 의미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재구성되어가고 있다. 노인의 감정을 확고부동한 노인 정체성과 묶어둘 수 없는 것처럼, 노인의 집 역시 고정된 특정 장소감으로 축소시킬 수 없다(김희경, 2016).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라 하더라도 집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관계들의 변화, 노인 자신의 신체적 변화 등의 복합적 요인들로 인해 노인의 집은 그 의미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예외적으로 노인의 집만을 행복한 고향 같은 장소로 그리려는 시선은 집에 대한 문화적 상상의 재투사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는 노인 관련 사회정책에도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대부분의 노인 복지 관점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아온 곳에서 나이 들어가는 거주지에서의 노화(aging in place)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인의 집은 매우 복잡한 맥락들 속에서 전통적인 노인과 장소의 관계에 대한 상상들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우국희(2017)에 따르면, 거주지 노화 정책은 고령화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핵심 이념이며, 원하는 곳에서 살고자 하는 노인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적 관점과 이념의 확산에 의해 힘을 받고 있다. 하지만 노인의 장소(place)가 노인이 살아온 집(home)을 의미했던 시각들은 최근에는 집의 범위를 넘어서 이웃사람, 지역사회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어디에서 사는가보다, 누구와 어떻게 함께 늙어갈 것인가가 주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우국희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공동체 안에서의 노화(aging in community)로의 전환을 제기한다.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은 독립, 자유 등을 보장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외로움, 무력감, 지루함 등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3. 경동 소외자로서의 노인들의 삶

행복한 노년 서사의 또 다른 한계는, 이상적인 노년의 표상이 현대 문화 대중의 판타지와 결합하면서 변화가 더디게 일어났던 전통사회의 연령규범을 노인에게, 그

반대의 감정 규범을 청년에게 부여하는 시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노년의 삶을 현재 불안정성 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사회의 혼란기를 벗어난 세대로 재현하는 것을 정당화하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년 다큐멘터리들 중에서도 특히 노인의 삶이 도시 공간과 결합한 경우, 노인의 정동적 삶은 불안정성 사회와 맥락화된 것으로 그려진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큐멘터리 영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작품에서 잘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도시 재개발로 사라지는 부산 영도의 한 골목길 풍경과 그 속에서 거주하고 있던 노인들이 어쩔 수 없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전까지의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부산 영도의 도시 개발 계획을 통해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점바치로 살아온 할머니들의 삶이 주를 이룬다. 또 영화 속에는 곧 사라질 노후한 골목 안쪽 계단 옆 비탈집에서 평생을 살아온 할머니와 그녀를 격주로 찾아오는 딸의 이야기도 담겨 있다. 이들은 모두 오래된 이 골목의 주인들이었지만 지금은 현대화된 관광단지로 개발하려는 도시계획에 의해 자신들이 살아온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운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재개발되는 도시에서 주변부 노인들이 겪는 삶을 보여주는 이러한 시선은 노인의 삶을 동시대의 다른 세대들과 구분되는 특별한 존재로 표상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사실 노인들은 도시의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주변부에서 살아가는 한 더 심각하게,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현대화된 세계에서 도시가 투기의 장소로 변해 버린 것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다. 이제 도시는 도시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개발하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도시 곳곳이 개발을 목적으로 파괴되는 일이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발된 공간 밖으로 밀려나는 일도 흔하게 발생한다. 이는 불안정성 사회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감정 구조¹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영화 《그럼에도 불구하고》속에서 부산 영도 점바치 골목을 떠나야 하는 ‘점

18) 레이먼드 윌리엄즈(2009: 212)가 감정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부상하는 것들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경험의 구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감정의 구조는 아직 해석되지 못한 의미론적 설명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에 나타나는 정동적 삶(affective life)의 양상을 포함한다(Anderson, 2014: 115). 그것은 이데올로기나 담론 또는 정해진 어떤 관습적 규칙 같은 것이 아님에도 실제로 사람들이 정동되고 정동하는(to affect and be affected) 능력들에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감정의 구조는 하나의 물질적 환경으로서 인간의 삶을 조건 지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16). 사회는 고정된 것도 분명한 것도 아니며, 어떻게 삶이 살아지고 느껴지고 조직되는가에 대해 구체적인 효력을 갖는 감정의 구조와 같은 실체들로 구성된다(117). 이런 맥락에서 행복과 불행은 둘러싼 감정의 구조가 어떻게 노인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동시에 노인 사회와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

치는 할머니'가 느끼는 감정¹⁹⁾은 오늘날 도시 개발로 인해 삶터를 나가야 하는 주변부의 삶에서는 실제로 자주 경험되는 공통감이다. 투기화된 도시에서는 모든 것이 유동적이며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대부분은 이러한 장소 상실의 경험을 공통적으로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점치는 노인과 함께 영화 속에는 부산 조선소 노동자가 예정된 실업의 공포 속에서 쓸쓸하게 바닷가에서 홀로 색소폰을 부는 장면들이 중첩된다. 영화 속에 등장하는 골목에서 쫓겨나는 노인이나 조선소에서 실직하는 중년의 노동자나, 이들 모두는 도시에서 주변부에 자리한 존재들로서 도시 개발로 인해 자신들이 오랫동안 삶의 에너지를 투자한 장소들을 상실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 모든 것이 시장 논리에 의해 재편된 불안정성 사회에서 익숙한 삶터 혹은 일터로부터 쫓겨나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하는 경험은 일상적 느낌이자 하나의 분명한 사회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다큐 영화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개인들이 저항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보여준다. 영화는 결국 그러한 저항 자체가 무력화되는 도시 주변부의 삶에 초점을 맞추며 끝난다. 영화는 도시 밖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을 비애어린 시선으로 들여다보지만 그 안에서 정치적인 연대가 구성되지는 않는 상황에서 마무리된다. 결국 세련된 관광장소로 개발된 후 할머니들이 있던 자리에는 점바치 할머니의 기능을 대신하는 점치는 기계가 설치되고, 그 어떤 것도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확증된다. 기실 불안정성이 극도로 팽배한 사회에서 개인들은 언제나 실직을 염려하고, 불안하게 미래를 걱정하게 된다. 하지만 달라진 세상에 분노하지만 또 어쩔 수 없이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불안과 함께 무기력한 감정들이 개인들을 감싼다. 바로 그 점에서, 점치는 할머니들이 공무원들에게 거칠게 분노를 표출하는 장면들은 비단 노인의 감정으로만 읽히지 않는다. 거기에는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과 여기에서 형성되어온 정동적 소외로서의 집합 감정이 얹혀 있다.

19) 《그럼에도 불구하고》에는 관광지로 개발되는 점바치 골목에 공식적으로 방문한 부산시장을 찾아 사람들 사이를 굽은 등으로 걸어나는 점바치 할머니의 모습이 이방인처럼 재현된 장면이 있다. 그녀는 시장을 만나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하는데…(개발되면) 우리 (점바치들) 활성화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도 살게 해줘야지, 우리가 몇십 년 산다고”라고 이야기를 꺼내며 시장을 자신이 거쳐하는 점집으로 데려가려 한다. 하지만 시장이 아닌 공무원들이 그녀를 찾아 “건물 주인이 요집이 위험하기 때문에 새로 지어야 하니까 나와 줘야 한다”고 말할 뿐이다. 축제 분위기의 개발 공간에서 할머니의 주장은 결국 수용되지 못한 채 소음으로 변해버리는 장면이 할머니의 미래를 암시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점바치 할머니가 집에서 쫓겨나와 거리에 앉아 점을 치는 일을 계속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녀는 개발되고 있는 영도다리의 주인은 더 이상 아니며 정동 소외자의 모습으로 재편된다. 영화는 노인의 삶의 목소리와 함께 그녀의 기억들이 어떻게 지워지는지를 성찰하도록 이끈다.

즉, 이러한 노인의 감정은 발전주의적 도시 담론 속에서 끊임없이 주변부화 되어 온 사람들 내부에 축적된 감정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를테면 아메드(2008)가 말한 이방인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도시의 발전과 개발로부터 보상받지 못한 채 밀려나야 하는 도시 노인들은 자본주의 도시 사회로부터 어떠한 정동적 자원을 지원받지 못한 채 정동 소외자로 방치되곤 한다. 그런데 이러한 소외 정동의 과정은 다른 면에서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하나의 집합적 정치적 주체로 호명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은 《미스 프레지던트》의 노인 서사에 보다 분명하게 구현된다.

이 영화에서 감독은 태극기 부대라 불리는 노인들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들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지를 추적한다. 광장에 나가 박정희 시대를 향수하는 노인의 모습은 미디어 속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노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광장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현 시대를 비판하고 과거를 향수하는 노인들은, 행복한 노년의 이미지와 함께, 그 자체로 오늘날 미디어가 양산하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전형화된 노인의 이미지이다.

그런데 이 영화 속에서, 광장에 나온 노인들은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동적 자원이 고갈되어버린 존재들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러한 소외에 대한 반동으로써 분노의 감정들이 구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광장에 모인 노인들의 분노 감정은 어떤 면에서 발전된 현대 한국 사회로부터 소외 되어 오늘에 이른 역사적인 경로 속에서 자연히 축적되어온 부정적인 감정들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국민교육헌장을 암송하며 박정희 대통령을 찬양하며 자신만의 의례를 진행하는 청주에 사는 농부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²⁰⁾ 광장에 선 노인

20) 영화 《미스 프레지던트》속 인물들 중 청주에 사는 농부 조육형 노인의 모습이 그러지고 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37주기 추도식에 참석할 정도로 과거의 시대를 영광스럽게 기억한다. 그는 매일같이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40년 동안 만만 이상 국민교육헌장을 암송했다고 말한다. 군대 제대 후 식량이 없어 고생할 때 새마을운동이 가난을 해결해줬다고 말한다. 자신이 마을에서 1기생 새마을지도자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곡식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도로를 놓고 초가집을 기와집으로 만드는 일에 참여했던 기억을 이야기한다. 그는 그 모든 일이 새마을운동이 박정희대통령의 뜻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건으로 술회한다.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그녀를 옹호하는 태극기부대에 동참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기억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한다. 그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었던 정동적 사건을 지금의 태극기 정동과 연결한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의 장소를 상실한 노년기의 삶을 표상해주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태극기부대 안에서도 한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광장에서의 그의 표정은 여전히 관객에게는 그를 이방인으로 보이도록 만들었는데 결국 그는 자신의 기억 이외의 현실에서는 안정적인 감정적 장소를 찾지 못한 채 부유하는 것처럼 보였다.

의 분노는 내적 차원에서 경험하는 근본적인 상실감과 함께 이를 사회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규범적 언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전쟁을 직접 경험한 세대이며, 폐허가 된 국토에서 지금의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들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감정적 언어를 상실하게 되면서 태극기가 그들의 감정을 상징해주는 가장 분명한 정동적 기호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태극기 부대 노인들은 그들이 의지해야 할 감정적 언어가 ‘국민교육헌장’ 이외에는 남아 있지 않은 정동적 소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상진(2018: 50)의 고찰은 분명한 성찰을 준다. 그는 광장의 노인들을 “시간 속의 이주민”이라고 부른다. 그는 광장에서 분노하는 노인들의 정치적 정체성에 주목하면서, 이들 내면에 자리한 그들의 정체성의 기원으로서의 ‘시간 고향’ 상실의 경험을 살펴본다.²¹⁾ 광장으로 가는 노인에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건은 그야말로 그들의 정체성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억 속 고향을 부수는 상징적 사건으로 경험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김진욱·허재영(2018) 역시 태극기집회에서 발생한 사회적 인정과 정치적 저항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광장에 노인들을 불러들인 요인을, 사회적 무시가 낳은 모멸감과 여기서 비롯된 정치적 저항감에서 찾고 있다. 즉, 이러한 모멸감이 비슷한 속성과 가치를 가진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이 감정이 잠재되었다가 특정한 계기에 의해 집단적 저항으로 분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태극기집회의 주된 참여자는 노년층이며, 그동안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면서 누적된 모멸감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촛불집회를 계기로 이들을 결집시켰다는 것이다. 즉, 광장의 태극기 집회의 집합적 분위기는, 위 논자들이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감정적 지지대를 상실한 노인들의 정동적 소외 과정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발전된 세계로부터 지속적인 정동 소외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노인의 신체에 어떤 부정적 느낌들이 강도를 형성

21) 전상진(2018: 181-2)은 시간 고향이 하나의 기억된 감정의 풍경이며, 어떤 세대에 속해 있다는 감정적 느낌이나 자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 고향은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지 않는다. 또한 시간 고향은 벗어날 수 없는 ‘우리 감정’의 토대이고, 망각에 이의를 제기하고, 단절을 통해 세대를 결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시간 고향이 대중매체를 통해 알려지고 저장되며, 매스미디어가 공적 영역에 제공한 동일시 또는 일체화할 수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잠재적 세대 구성원들의 공통점이 질충되면서 세대 공동체가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이는 시간 고향을 둘러싼 일정한 감정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문제는 현대 세계에서 시간 고향을 상실한 존재를 노인에게만 국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프리캐리어스 사회는 우리 모두를 이러한 시간 고향을 상실했거나 그럴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던져놓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해 가게 되며, 또 이러한 느낌들이 태극기 형상에 달라붙는다. 결국 여기서 형성된 어떤 집합 정동들이 평범한 노인들을 광장으로 불러들이는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태극기를 노인들의 정동 소외와 연결된 하나의 정동 정치로 해석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 불안정성 사회에서의 노화의 의미와 정치적 가능성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 살펴본 노인들의 정동적 소외 과정은 현재 한국 사회의 불안정성(*precarity*)과 연결되는 감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바우만(Bauman, 2009: 13-4)은 ‘개인화된 사회’의 감정들을 논의하면서, 문화적·사회적으로 순환되는 공포와 불안의 감정들을 우리 시대의 마음의 프레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바우만은 현대인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의 감정이 개인 내부에서 자가 발전하는 감정으로서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의심이 강화되면 언젠든 무기력감으로 변형된다고 지적한다.²²⁾ 그래서 집합적 연대 또한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즉, 노인들이 느끼는 공포와 불안, 취약함 등은 우리 사회의 이러한 세계관과 연결되어 있다. 노인과 청년을 분리하고 갈등 구조를 강화하는 시각들 역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해석될 수 있다. 노인의 삶을 청년의 삶으로부터 분리하고 서로 경쟁하는 존재로 그리는 세대 간 갈등론적 시각의 배후에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precariousness*)이 자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대 사회의 이러한 집합 감정에 대해 앤더슨(Ben Anderson)은 포디즘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노동 경험 세계와 지금의 감정 구조를 구분하면서, 시장과 경제 구조의 변화가 불러온 불확실성이 우리 시대의 확실한 감정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한다. 불안의 감정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느끼는 불안이 과거의 감정과 다른 점은 불안의 일상화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어느 날 불쑥 그 모습을 드러내는 역사적 재난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한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는 정동적 분위기라는 것이다(Anderson, 2014: 126). 이미 불안정성(*instability*) 자체가 정상적인 것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바바렛(2007: 265)은 실업의 공포가 하나의 사회적 집합체의 성원들에 의해 경험되고 공유되는

22) 바우만(2018: 207)은 개인화된 사회에서는 “도덕적 의무의 사유화”를 가져온다고 비판한다. 이렇게 되면, 도덕성이 구성원 간의 감정적 접촉을 형성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고독감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것을 오로지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식하는 이유이다.

사회적 공포라고 말한다. 따라서, 앤더슨(Anderson, 2014)도 설명하고 있듯이, 위태로움이 팽배한 감정적 분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삶의 방향성을 바꾸어 버리는 예외적 상황이 더 이상 아니며, 세계 내 존재들에 압력을 가하고 제한하는 조건이자 환경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은 일상을 구조화하는 정동적 조건이자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세계-내-존재로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일상적 경험 속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화 감정은 노인만의 것으로 사유될 수 없다. 불안정성 사회의 감정구조 속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노년의 삶을 청년과 다른 것으로 재현하는 것은 이러한 현재의 감정구조와 분리하여 노인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며, 이는 노년/청년의 삶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정당화하는 문화 정치적 맥락들과 연합하곤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정진의 자서전적 다큐 기록물인 『임계장 이야기』에 대해서도 주목이 필요해 보인다. 이 책은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임시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63세 정년퇴임 사무직 노동자의 삶에 대해 노동일지처럼 기록한 글이다.²³⁾ 특히 이 책은 노인의 삶이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유동화된 노동질서에 의해 어떻게 폐허화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안정적 직업 경력을 두루 섭렵한 주인공이지만 정년퇴임 후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변해버린다. 그가 정규직 노동자로 살아갈 때는 알 수 없었던 임시직 노동자의 삶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신체와 감정에 가해지는 불안정성과 불평등성이 직접적인 경험담으로 기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그의 삶이 의미를 지니는 것은 그의 삶이 그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 부과될 세상, 결국 우리 모두가 임시직으로 살아가게 될, 안전망 바깥으로 밀려난 평범한 노년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사유해보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임계장 노인의 삶에는 정년을 마친 후 기대했던 안정적인 노후에 대한 낭만적인 감정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²⁴⁾ 노인이 되어간다는 것은 삶의 완성으로 이

23) 화자인 조정진은 자신의 약력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38년간 공기업 정규직으로 일하다 2016년 퇴직 후 4년째 시급 노동자로 일하고 있다. 버스 호사 배차 계장, 아파트 경비원, 빌딩 주차관리원 겸 경비원을 거쳐 버스터미널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다 쓰러져 해고되었다. 7개월 간의 투병 생활 이후 지금은 주상복합건물에서 경비원 겸 청소원으로 일하고 있다.”

24) 이 책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일기들이 한 사람이 임시직으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신체적 반응을 적고 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분명한 감정으로 표현되지만 어떤 때는 감정보다 먼저 의식하기도 전에 어떤 불평등한 것들이 축적되는 과정과 그것에 의해 강화되는 어떤 정동적 삶을 기록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사례: “[고속버스터미널 보안요원으로 일할 때] 아파트 옥상에는 1500만 화소의 CCTV 카메라가 있었다. 물고기 눈처럼 어안렌즈는 전후좌우 안 보이는 곳이 없다. 확대 기능이 뛰어나 촬영한 것을 가까이 당겨 볼 수도 있고 촬영된 화면은 테라바이트급으로 저장되어 언제든지 돌려 볼 수 있다. 경비원의 24시간은 감시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

어지지 않으며, 퇴임 후 혹은 정규직 노동자의 삶이 끝난 후 새로운 임시직 생계 시장으로 들어서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²⁵⁾ 이와 관련하여, 이승운·서효진·박고은(2018)은 청소년노동자를 대상으로 계층적으로 주변부에 자리한 노인들의 삶이 어떻게 불안정성 사회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분석한 바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하청 여성 청소년노동자들 중에서도 고령층이 많은 것에 주목한다. 노년 청소년노동자들은 대부분 비정규계약직으로 일하면서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안전망 또한 제공되지 않는 처우를 제공받는다. 따라서 만일 실직하게 되면 이들은 즉각적으로 주된 소득원을 완전히 상실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즉,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 자리한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여성 그리고 노인층이 더 복합적인 불평등 문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행복한 노년 서사의 긍정적 힘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수많은 임금계약(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준말) 이야기에, 그리고 수많은 주변부의 노인들의 삶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²⁶⁾

한편, 이러한 사회정치적 맥락 속에서, 《밀양 아리랑》과 《소성리》의 노년 풍경은 특별히 주목을 끈다. 즉, 여기 등장하는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이 정치적, 생태적 위태로움과 결합하면서 어떻게 노인들을 정치적 주체로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밀양과 성주 할머니들이 보여주는 특별함은 이들이

어 있다. 한번은 화장실 뒤에서 담배를 한 대 피웠다. 잠시 후 설비부장이 나를 부르더니 CCTV 영상을 보여주었다. 몇 시, 몇 분, 몇 초에 담배를 피우는 내 모습이 생생히 찍혀 있었다. 오싹했다.”(조정진, 2020: 231)

- 25) 작가는 그가 도시에서 만난 그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에 대해 발견하는 장면을 이렇게 쓴다. “호칭은 바뀌지 않았다. [임계장이라는 말을] 계속 듣게 되니 이제 남은 삶은 온전히 임계장으로 살아가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이 들면 온화한 눈빛으로 살아가고 싶었는데 백발이 되어서도 핏발 선 눈으로 거친 생계를 이어 가게 될 줄은 몰랐다. 문득 터미널을 돌아봤다. 구석구석 깔고 있는 등이 굽은 할아버지들과 늦은 오후 영화관으로 출근하는 할머니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 터미널만 봐도 인력의 80퍼센트가 비정규직이고 그중 많은 수가 임금계약장이었다. 이 고단한 이름은 수많은 은퇴자들이 앞으로 불리게 될 이름이기도 할 것이다.”(조정진, 2020: 39)
- 26) 임시직 노동자에게 질병은 곧 해고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될 수 있고, 화자 역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 때의 일을 이렇게 적는다. “그러나 질병을 ‘특별한 사유’로 보아 우선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황 대리는 또한 “계약 기간 중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사전 예고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으므로 이는 적법한 해고”라고 다시 적법성을 강조했다. 결국 터미널고속은 질병 휴가를 하루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저 ‘노환’이니 일할 수 없으면 떠나야 한다고 했다. 당장 달려가서 따지고 싶었다.” 임계장의 삶에서 화자가 겪은 일 중 하나인데, 노동 과정에서 노인 직원이 아프면 노환으로 취급하는 일에 대한 부당한 감정을 표현한 대목이다. 이밖에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이야기 등이 글에는 부당한 임시직 노동자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이다.(조정진, 2020: 245)

기존의 나약한 노인에 대한 통념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들은 모두 하나의 특별한 감정 주체이자 정치적 주체로 변해가는 ‘되기’(becoming)를 보여준다. 송전탑건설반대 운동에 참여한 노인들과 THAAD 설치를 반대한 노인들의 모습은 행복한 노화가 어떤 가치에 대한 ‘정치적 지켜냄’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밀양 할머니들은 발전주의 국가를 떠받쳐온 상상의 공동체로부터 감정적으로 불화함과 동시에 그들이 소속된 지역공동체로부터도 소외되는 이중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정치적 주체로 구성되어간다(신진숙, 2017). 한편 성주 THADD 반대 할머니들은 마을 주민들과 협력이 더 강조된다. 마을 주민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마을의 생태주권과 주거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노인들은 행동 주체이면서 동시에 마을의 상징적 존재로서 성주 주민 운동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농촌이라는 장소 역시 매우 복잡한 힘들어 얽힌 정치적 공간이라는 사실이다. 문화적으로 농촌은 도시와 대립하는 진정하고 참된 장소감의 상징으로 구현되어왔지만, 실제의 농촌은 이러한 장소감들이 파열하는 분열적 공간으로 존재한다. 이를테면 밀양과 성주에서 보상을 둘러싸고 분열하는 지역 현실은 노년의 행복한 장소로서 상상된 농촌의 이미지를 깨뜨린다. 실제 농촌은 평화롭고 조화로운 장소로 농촌을 상상하는 문화적 상투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화 과정에서 농촌 내부에서도 지리적 근접성을 통해 구성해왔던 전통적인 감정 공동체가 서서히 파열의 과정을 거친다. 이는 행복한 농촌 노년 서사에서는 은폐된 채 표현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주변부화된 임시직 노동자나 농촌 지역의 노년의 삶이 만들어내는 어떤 정치적 연대의 시선과 실천들이 실험되는 과정이다. 노인들이 우리 사회의 불안정성 감정 구조와 연결하여 하나의 특정한 정치적 주체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을 뛰어넘는 연대적 실천들이 사유되고 있다. 가령, 앞서 살펴본 임계장 이야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그가 발견한 수많은 청년 임시직 노동자들의 삶이다. 그가 일하는 적지 않은 일터마다 마주했던 계약직 노동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과 그의 삶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작가의 시선이다.²⁷⁾ 이는 노인으로서 느끼는 소외 정동이 비단 노인의 신체에만 달라붙은 감정만

27) 다음은 그가 임시직 노동장에서 만난 청년들이 시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록이다. “노을 아파트에서 나를 보면 먼저 인사를 건네는 사람이 딱 둘 있었다. 아파트 옆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었다... 시급은 6030원. 하루 3만5000원으로 둘 다 똑같다. 정확히 계산하면 3만6180원이지만 1180원은 그냥 떼고 준다고 했다. 내게는 그들의 재능과 활력이 시급 6030원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인색함을 넘어 착취로 느껴졌지만 현실은 그랬다.”(조정진, 2010: 148)

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즉, 작가는 임계장으로 살아가는 시간을 겪으면서 노화의 감정이 자연히 겪게 되는 생의 일부로만 해석될 수 없으며, 불평등한 사회 구조와 맞물리면서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노화의 감정을 현 사회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이 시대의 불안정성과 그것이 만들어내는 감정 구조 속에서 다시 사유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일상화되어버린 세계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임시직 청년과 노인들이 도시와 도시 주변부에서 마주치고 있다. 이러한 마주침은 고된 임시직 노동자로서의 삶이 이미 편만한 사회에 대한 비극적인 인식임과 동시에 이 비극적 삶을 통해 새롭게 타자와 연대하는 가능성의 공간들을 실험하는 조건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밀양과 성주의 할머니들을 통해서도 발견될 수 있다. 예컨대, 한상진(2015)은 이곳의 할머니들이 주변부 계층의 비정규직화 현상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할머니들의 투쟁 속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희생과 연대의 공간이 마련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밀양과 성주의 지역 투쟁에서는 노인들만이 아니라 노인과의 연대하는 청년 세대의 모습이 발견된다. 물론 이러한 연대는 여전히 가능한 영역으로만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에서 생태와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하나의 집합적 정치 주체로 등장한 할머니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농촌 코럴 장소 안팎에서 다양한 저항 주체들과 연대하는 모습이 발견된다. 경제적·정치적·생태적 불안정성 사회에서 노인의 장소가 어떤 잠재적 상태로 존재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노인/청년 세대론적 프레임으로는 이처럼 변화하는 노인들의 정치적 주체화 과정을 고찰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다.

IV. 노년기 감정의 구성 과정과 사회학적 의미

한 사회에서 강화되는 문화적 상상과 재현은 대중을 하나의 감정적 공동체로 묶을 수 있다. 즉, 매체를 통해 노화를 경험하고 느끼는 특정한 방식의 감정적 경로를 이 구성되고 문화대중은 이에 정동화된다. 200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노화의 감정이 구성되는 전형적인 방식은 대부분 성공적인 노화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성공적인 노화 담론은 그 성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삶을 성공과 평범이라는 이분법으로 다시 구별 짓고 위계화하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연령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주류화된 행복한 노년 서사와 주변부화된 평범한 노년 서사들 사이의 충돌과 경합 과정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러한 과정 자체를 노화 감정의 동학(動學)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먼저 기존의 성공적인 노화 감정과 연관된 행복한 노년 서사가 무엇인지 고찰하고 대중적으로 소비되는 노년 이미지가 한 사회의 문화적 지향, 특히 과거회귀적인 레트로토피아 감정들과 결합하고 있음을 분석했다. 나아가 성공적이지 않은,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노화의 감정을 고찰하도록 도와주는 서사들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노화의 복잡한 현실을 드러내고자 했다. 이 논문의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의 삶은 안정적이지도 평온하지도 않다. 노화의 감정은 오히려 복잡하고 유동적이다. 노년을 세대론 프레임으로 해명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세대론적 시각은 노년의 삶을 청년기로부터 분리하여 위상학적으로 타자화하는 시간의 오리엔탈리즘으로 해석될 수 있다. 행복한 노년 서사는, 우리 내부에는 행복의 약속을 정동화시키는 경향들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큐 서사들이 제공하는 행복한 노년에 대한 정동적 프로그램 혹은 약속이 노화의 실재라고 할 수 있는, 즉 행복한 노년 이미지 이면에 존재하는 이질적인 감정들을 단순화시켜 바라보게 만드는 감정 정치와 연결되고 있음을 고찰했다.

둘째, 따라서 행복한 노년의 약속은 부정적 노화의 감정들을 조정하고 통제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 행복한 노년의 정동적 약속은 노년의 안정된 삶을 재현하기 위해 불안정한 노년의 감정들을 제거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행복의 정동적 약속이 노인들에게 부과된 하나의 감정 규범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노인들이 드러내는 소외자 정동은 문화적 재현 속에서 고령사회의 위기담론으로 해석되거나 행복한 노년의 드라마에 포섭되어 제거되곤 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그러므로 행복하지 않은 감정들은, 행복을 강화하기 위해 제거해야 할 어떤 감정들이 아니라, 행복한 노인의 가면 아래 자리한 가려진 노인의 맨 얼굴로 이해되어야 한다. 노년의 진실은, 노화의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충동, 생의 의지와 죽음에 대한 불안 사이에서, 삶의 주체로서 살아온 과정과 세계와 가족으로부터 주변부화 되어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들 사이에서 충돌하면서 구성된다. 따라서 행복한 대상들에 정동되지 못하는 이질적이고 불규칙한 감정들을 드러내는 대안적 노년 서사의 생산이 더 요구된다.

셋째, 정동 소외자로서의 노인의 모습은 비단 노인 세대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행복한 노년의 서사는 노인의 감정을 노인성으로 분리하여 해석하도록 유도

할 수 있다. 기실 불확실성이 하나의 일상적 삶으로 편재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든 자신이 살고 있던 장소로부터 쫓겨나가거나 삶의 토대가 흔들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노화의 감정은 사실은 노인에게만 국한된 감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시대의 집합적 감정 구조 속에서 재기술되어야 한다. 노인의 정동적 삶을 우리 시대의 집합 감정 속에서 통합적으로 읽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노인의 감정을 사회적 복잡성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는, 결국 노화의 감정을 개인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성공적 노화 담론이 노화를 개인화된 행복의 윤리로 접근하도록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노화 감정은 특정한 노인 정체성과 엮어서 굳어진 실체적 감정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사회, 역사, 정치, 경제적 관계들과 얽힌 채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감정 체계로 분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동 소외자로서의 노인의 감정에서 새로운 정치적 주체의 출현을 가능케할 수 있다. 노화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균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불안정성 사회에서 행복한 노년을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정치적 실천이자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주변부 공간에서 노인의 삶이 사회적 불평등성이 응집된 장소라는 점을 드러내고 공론화하는 재현장이 더 필요하다. 이는 노인을 수동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거나 행복한 완성된 인격체로 단순화하는 시선에 저항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노인을 정치적 주체로 상상하고 재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에서 보듯, 이 논문은 노년 서사에만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논문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보다 폭넓은 사회학적 실천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 나아갈 계획이다. 학제적인 연구를 통해 성공적인 노화 담론을 넘어 노인 삶에 대한 문화사회학적 접근 방식이 무엇인지 진전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특히, 노년 서사에서 젠더 규범과 연관된 감정 규범 및 죽음의식과 연결된 말년성 개념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지속해 나아가려 한다.

참고문헌

강금연 외. 2015. 『시가 뭐고?』. 삶창.

Kang, Geum-yeon et al., 2015. *Si-ga mwogo (What is Poetry?)*. Salmchang.

- 김영조 감독.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 Kim, Yeongjo (director). 2015. *Still and All*.
- 김은준. 2017. “미디어가 표방하는 고령화 사회의 바람직한 노인상: 환영받는 시민으로 노년을 보낼 사명.” 『한국언론학보』 61(3): 157-188.
- Kim, Eun June. 2017. “How Media Makes the Elderly into Welcoming Citizens in the Aged Society.”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1(3): 157-188.
- 김재환 감독. 2017. 《미스 프레지던트》.
- Kim, Jaehwan (director). 2017. *Miss President*.
- _____. 2018. 《칠곡 가시나들》.
- _____. 2018. *Granny Poetry Club*.
- 김정석·조현연. 2017. “인구고령화 시대, 생산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과학연구』 24(2): 7-28.
- Kim, Cheong Seok and Hyun-yun Cho. 2017. “Another View on the Social Discourse of Productive Aging in Korea.” *The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24(2): 7-28.
- 김홍중. 2016. 『사회학적 파상력』. 문학동네.
- Kim, Hong-Jung. 2016. *The Sociology of the Heart*. Munhakdongne Publishing Corp
- 김희경. 2016. “노년의 장소와 장소상실: 일본 농산촌 지역에서의 실천과 장소감각의 경합.” 『비교문화연구』 22(1): 259-289.
- Kim, Heekyoung. 2016. “Place and Placelessness of Old Age: The Politics of Aging in Place in Rural Japan.” *Cross-Cultural Studies* 22(1): 259-289.
- 노명우. 2013.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고독한 사람들의 사회학』. 사월의책.
- No, Myung-Woo. 2013. *About Living Alone, Sociology of Solitude*. Aprilbooks.
- 로우, 존. W.로버트 L. 칸. 2001. 『성공적인 노화: 새로운 노년문화를 위한 지침서』. 최혜경·권유경 역. 학지사.
- Rowe, John. W. and Robert. L. Kahn. 2001. *Successful Aging*. translated by Choi Hyekyung and Kwon Yukyung. Hakjisa.
- 바바렛, 잭. 2007. 『감정의 거시사회학: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박형산·정수남 역. 일신사.
- Barbalet, J. M. 2007. *Emotion,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 A Macrosociological Approach*. translated by Park Hyungsun and Jung Soonam, Ilsinsa.
- 바우만, 지그문트. 2009. 『유동하는 공포』, 함규진 역, 산책자.
- Bauman, Zygmunt. 2009. *Liquid fea*. translated by Ham, Kyujin. Sanchaekja
- _____. 2013. 『방황하는 개인들의 사회』. 홍지수 역. 봄아필.

- _____. 2013. *The Individualized Society*. translated by Hong, Jisoo. BomApil.
- _____. 2018. 『레트로토피아: 실패한 낙원의 귀환』. 정일준 역. 아르떼.
- _____. 2018. *Retrotopia*. translated by Jung Iljun. Arte.
- 박배일 감독. 2014. 《밀양 아리랑》.
- Park, Baeil (director). 2014. *Miryang Arirang*.
- _____. 2017. 《소성리》.
- _____. 2017. *Soseongri*.
- 박혁지 감독. 2015. 《춘희막이》.
- Park, Hyukji (director). 2015. *With or Without You*.
- 보부아르, 시몬느. 1994. 『노년』. 홍상희·박혜연 역. 책세상.
- Beauvoir, Simone de. 1994. *La Vieillesse*. translated by Hong, Sanghee and Park, Hyeeyeon. Chaeksesang.
- 신진숙. 2016. “환동해 농촌경관의 문화적 구성과 재현의 정치.” 김재윤·김석희·신진숙·권세은·송석원·최영진·김호섭·추장민. 『환동해 관계망의 역동성』. 경희대출판문화원. pp.73-103.
- Shin, Jin-Sook. 2016. “The Cultural Representations of the Rural Landscapes in East Sea Rim.” pp.73-103 in *The Dynamics of East Sea Eim*. edited by Kim, Jae Yoon, Seokhee Kim, Jinsook Shin, Se Eun Kwon, Seok Won Song, Youngjin Choi, Hyosup Kim, and Jangmin Chu. Kyung Hee Universty Press.
- _____. 2019. “성공적인 농촌 노화 담론과 감정의 구성: 시 쓰는 할머니 서사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27(3): 143-182.
- _____. 2019. “Rethinking the Cultural Politics of the Emotions of Aging:Focusing on Narratives of the Rural Successful Aging.” *The Kore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 27(3): 143-182.
- _____. 2015. “재난 서사의 문화적 구성: 밀양과 후쿠시마를 사례로” 『문화와 사회』 18(47): 533-579.
- _____. 2015. “Cultural Construction of Disaster Narratives: Focusing on Great East Japan Earthquake (Fukushima Nuclear Accident) and the Millyang Anti-nuclear Struggle.” *The Kore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 18: 533-579.
- 어리, 존. 2016. 『모빌리티』. 이희상 역. 커뮤니케이션북.
- Urry, J. 2016. *Mobilities*. translated by Lee, Heesang. Communicationn Books.
- 렐프, 에드워드. 2005.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논형.
- Relph, Edward. 2005. *Place and Placelessness*. translated by Kim, Dukhyun, Hyunju Kim, and Seunghee Sim. Nonhyung.
- 우국희. 2017. “섬 지역 고령자의 장소경험과 의미: Aging in Place는 가능한가?” 『비판

사회정책』 54: 260-304.

Woo, Kughee. 2017. "Place Experience of Older Adults in Island Area: Is Aging in Place Possible?"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54: 260-304.

윌리엄즈, 레이먼드. 2009.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박만준 역. 지식올만드는지식.

Williams, Raymond. 2009. *Marxism and Literature*. translated by Park, Manjun. Jisigeulmandeuneunjisik.

이소현 감독. 2015. 《할머니의 먼 집》.

Lee, Sohyun (director). 2015. *Dear Grandma*.

이승윤·서효진·박고은. 2018. "청소노동자는 왜 불안정(precarious)한가?: 하청 여성 청소 노동과 한국 사회안전망의 허구성." 『산업노동연구』 24(2): 247-291.

Lee, Sophia Seung-yoon, Hyojin Seo, and Goeun Park. 2018. "Why are Cleaning Workers Precarious? - Subcontracted Female Cleaning Labour and Fictional Korean Social Protection." *Korean Journal of Labor Studies* 24(2): 247-291.

이종은 감독. 2018. 《시인 할매》.

Lee, Jongeun (director). 2018. *The Poem, My Old Mother*.

이충렬 감독. 2008. 《위낭소리》.

Lee, Chungryul (director). 2008. *Old Partner*.

이해욱. 2014. "기존 노인영화관 부대시설 개선방안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 논문집』 9(3): 63-70.

Lee, Haewook. 2014. "A Study on the Supplementary Facilities' Improvement Method of the Existing Cinema for the Elderly." *Journal of Korea Intitute of Spatial Design* 9(3): 63-70.

임정식. 2017. "《위낭소리》와 《님아-》의 신화적 모티브와 환상성." 『인문콘텐츠』 44: 207-232.

Im, Jeong Sig. 2017. "The Fantasy and Mythical Motif in *Old Partner* and *My Love, Don't Cross That River*." *Humanities Contents* 44: 207-232.

전상진. 2018. 『세대 게임: '세대 프레임'을 넘어서』. 문화과지성사.

Jeon, Sangjin. 2018. *Generation Game*. Moonji Publishing Company.

정경희·한경혜·김정석·임정기. 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Jung, Kyunghee, GyoungHae Han, Cheong Seok Kim, and Jeong-Gi Lim. 2006. *Critical Approaches to 'Successful Aging' Discours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정숙정. 2018. "농촌여성노인의 생애과정에 나타난 교차적 억압과 노년기 자아의 긴장." 『한국사회학』 52(3): 1-32.

- Jung, Sook Jung. 2018. "Intersectional Repression and the Tension of the Self in Old Age in the Life-course of Rural Elderly Women." *Korean Journal of Sociology* 52(3): 1-32.
- 정진웅. 2011. "노년 호명의 정치학." 『한국노년학』 31(3): 751-765.
- Chung, Jinwoong. 2011. "The Politics of Calling Old Age."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31(3): 751-765.
- _____. 2014.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 고령화시대의 노년 연구에 관한 제언." 『보건사회연구』 34(3): 452-476.
- _____. 2014. "Gerontological Research As Anti-Ageist Cultural Practice: A Proposal for Gerontological Studies In The Aging Era."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4(3): 452-476.
- 조정진. 2020. 『입계장 이야기: 63세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노동 일지』. 후마니타스.
- Cho, Jungjin. 2020. *Im-gye-jang Story*. Humanitas.
- 진모영 감독. 2014.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 Jin, Moyoung (director). 2014. *My Love, Don't Cross That River*.
- 최정우 감독. 2018. 《나부야 나부야》.
- Choi, Jungwoo (director). 2018. *Butterfly*.
- 최희경. 2010. "신노년 정책 담론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활동적 노화, 성공적 노화, 생산적 노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17(3): 41-65.
- Choi, Heekyung. 2010. "A Critical Review on 'New Aging' Policy Narratives - Focused on Active Aging, Successful Aging, and Productive Aging." *Korea Social Policy Review* 17(3): 41-65.
- 통계청. 2018. "2018 고령자통계." 통계청.
- Statics Korea. 2018. "2018 Statistics by Age indicators."
- 한상진. 2015. "밀양 송전탑 주민 및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의 희생과 연대를 통한 정의로운 지속가능성의 지향." 『경제와 사회』 105: 201-227.
- Hahn, Sangjin. 2015. "The Orientation for 'Just Sustainability' through the Sacrifice and the Solidarity of Residents in Transmission Tower Site 'Miryang' and Irregular Workers of 'Hyundai Automobile Company'." *Economy and Society* 105: 201-227.
- 한경혜 윤성은. 2007. "대중매체에서의 신노년 담론 분석: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2): 299-322.
- Han, Gyoung-Hae and Sungeun Yoon. 2007. "Critical Review of Discourse on Aging in Korean Newspaper."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7(2): 299-322.

- Ahmed, Sara. 2008. "The Politics of Good Feeling." *Australasian Journal of Critical Race and Whiteness Studies* 4(1): 1-18.
- _____. 2010. *The Promise of Happiness*.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and London.
- Anderson, Ben. 2014. *Encountering Affect: Capacities, Apparatuses, Conditions*. Ashgate.
- Butler, R. N. 1969. "Age-ism: Another Form of Bigotry." *The Gerontologist* 9(4): 243-246.
- Hepworth, Mike. 1998. "Ageing and the Emotions." pp.173-188 in *Emotions in Social Life: Critical Themes and Contemporary Issues*, edited by Bendelow, Gillian and Simon J. Williams. London: Routledge.
- _____. 2005. "Ageing and the Emotions: Framing Old Age in Victorian Painting." pp.177-190 in *Emotional Geographies*, edited by Davidson, Joyce, Liz Bondi, and Mick Smith. Ashgate: Aldershot.
- Rozanova, J. 2010. "Discourse of Successful Aging in The Globe & Mail: Insights from Critical Gerontology." *Journal of Aging Studies* 24(4): 213-222.

신진숙은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HK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과 동아시아(환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문학(문화)사회학적 관점에서 재난사회, 고령사회 등 도시사회의 제 모습과 함께 정동적 도시론, 정동적 미학과 실천 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0.05.28 접수; 2020.09.08 수정; 2020.10.27 게재확정]

A Study of Cultural Politics of Aging Emotions: Focusing on the Aging Narratives in the 2000s

Jinsook Shin
Kyung Hee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promise of happy lateness and its cultural implications, which have been popularized through the documentaries since 2000s. These documentaries are contributed to provide the positive emotional norms of aging related to the successful aging discourses. However, on the one hand, there is a problem that these documentaries can naturalize and justify the homogenized, biased images and socioscapes dominantly shaping the images of the older peoples. On the other hand, these contemporary popular documentaries tend to link the norms of good aging with the traditional but lost moral values. As a result, while the particular affective promises of happy lateness are constructed through these narratives of happy aging, the realities of aging, such as the marginalized or 'unhappy' (unsuccessful) aging, can be paradoxically concealed and distorted. In this respect, the author shows the way that these narratives intentionally erase out the wretchedness of old age, and questions how the cultural politics of aging is entwined with this dichotomy of 'happy/unhappy' aging emotions. In this point, this paper critically reexamines the cultural ideals of happy lateness and reconsiders the emotions of the old people in terms of the individualized ethics of the precarious society.

Key words: successful aging discourses, promise of happiness, structures of feeling, affect alien, precarity, cultural politics of emotion.